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1월 17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3장 33-44절 설교제목 :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교회 절기의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맥추절/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교회력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는 아마도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력의 추수감사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1621년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첫해의 추수를 감사하기 위해 모인 것을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생각합니다.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초막절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토지 소산을 거둬 즉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일 년 농사가 완성되는 대(大)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수확한 결실을 추수하고 저장되어진다는 의미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모두 같은 절기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풍성한 결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초막절은 감사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초막절의 절기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만든 절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37절)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의 절기로써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물과 구별하여, 특별히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38절) 보통 감사의 마음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에는 왜 특별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4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지 주일만 아니라 절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레 기간이란 상징적인 의미로 충만한 기쁨입니다. 충만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내야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일주일도 좋지만, 오늘 만큼은 충만한 기쁨으로 축제를 벌여야 합니다. 어떻게 충만한 기쁨으로 지냅니까? 시편 95: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즐거이 그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초점은 결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져야 합니다. 결실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입니다.(34절) 초막절의 관심은 포도나 올리브의 수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초막절 절차상 완전함을 상징하는 7일 동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감사와 헌신을 온전하게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풍요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풍요를 주시든, 안주시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풍요가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요, 목적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42절, 43절) 이스라엘 백성인 기원전 1446년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니산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고, 니산월 15일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출19:1)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민수기 10:11에 보면 정확하게 다음 해 둘째 달 20일에 출발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십니다. 매우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대략 1년입니다. 그리고 그해 둘째 달 20일에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기간이 40년입니다.

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낼 때 그들이 거했던 것이 초막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에 거하던 때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방황과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막을 **쑥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쑥카 즉 초막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민족의 과거의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풍요의 시간에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기억하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초막이 되어주셨구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기억합니다. 더불어 한 해의 결실도 우리의 땀과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어의 **감사하다**란 단어는 생각하다는 **think**에서 온 말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왜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결코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기를 주신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절기가 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이 없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걸어온 삶이 불순종의 흔적들이 수두룩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삶의 자국들이 많은가를 돌아봅시다. 따라서 다시금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풍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목적됨을 다시금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두 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였는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신 감사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